「취업진로연구」 제11권 제1호(통권 33호)
(사)한국취업진로학회
2021. Vol. 11, No.1, pp.159~181
DOI http://dx.doi.org/10.35273/jec.2021.11.1.007

논문접수일 : 2021년 02월 09일
최종수정일 : 2021년 03월 21일
게재확정일 : 2021년 03월 24일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 간의 관계*

- 가족지지 및 친구·선배지지의 조절 효과 -

정백(경희대학교)** · **안선희**(경희대학교)*** · **오윤자**(경희대학교)****

국문요약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다양한 경험을 하기 어려워 자신의 흥미나 적성, 진로에 대한 탐색과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대학생 시기를 맞이한다. 더욱이 지속되는 경제적 불안과 청년실업률이 증가하는 사회적 상황은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를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대학생들에게 가족과 친구·선배와 같은 중요한 타인으로부터의 지지는 진로와 전공적성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취업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응을 도와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보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 간의 관계와 가족지지 및 친구·선배지지의 조절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전국 대학생 3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로는 첫째, 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지지와 친구·선배지지는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취업스트레스는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학교 유형, 학년, 졸업 후 희망 진로, 학교만족도, 취업준비 정도, 경제적 생활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취업스트레스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지지 및 친구·선배지지도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넷째,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가족지지는 조절 효과가 있었으나 친구·선배지지는 조절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조절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가족의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갖는다. 또한,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개인 특성요인을 살펴보고, 취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전공만족도, 가족지지, 친구·선배지지, 취업스트레스.

---

* 본 논문은 제1저자 정백의 석사학위논문 축약본임

** 제1저자,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빅데이터응용학과 박사과정생; E-mail: ylbaek@khu.ac.kr
*** 공동저자,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E-mail: shahn@khu.ac.kr
**** 교신저자,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E-mail: yoonja@khu.ac.kr; Tel: 02-961-0522; Fax: 02-961-0550.

Ⅰ. 서 론

생애 진로발달의 탐색단계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은 외부환경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며 자신의 진로를 찾고 실행하는 진로발달 과정을 겪는다. 개인의 진로 직업 선택에 따라 경제적·사회적 지위, 가치관, 능력 발휘의 기회 등 생애 진로 전반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대학생 시기는 진로 결정 및 실행에 있어 중대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황정희·임석빈, 2015). 하지만 우리나라 대학생의 대부분은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하여 다양한 경험을 하기 어려우므로,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인 정체성 형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대학생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장신애, 2016). 자신의 흥미나 적성, 진로에 대한 탐색과 이해가 결여된 대학생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미성숙한 진로의식을 갖게 됨에 따라(정철영, 2011) 향후 대학 졸업 직전 및 직후의 취업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나타내게 되고 학교생활이나 학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박윤미·양지인, 2019; 유은영·양유정, 2013; 천만봉·이종구, 2013). 더욱이 지속되는 경제적 불안과 청년실업률이 증가하는 사회적 상황은 대학생들의 진로와 취업에 대한 불안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김종운·지연옥, 2016).

대학에 진학하며 전공을 선택할 때, 개인의 내·외부적인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전공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개인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다고 하지만 현재 대학생들은 사실상 진로에 대한 고민과 탐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정철영, 2011). 자신의 적성과 재능에 맞추기보다는 고등학교 내신점수 또는 수능점수에 따라 전공을 선택하거나 부모·가족·교사 등의 권유를 받아 대학 전공을 지원하고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전공을 선택하는 예도 있다. 이렇게 자신의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공을 선택한 대학생들은 자신의 전공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며, 이후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전공이 취업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취업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게 된다(정영희·양진희, 2013, 정철영, 2011).

한편,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를 줄이는데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지지가 도움이 될 수 있다. 타인으로부터의 지지는 위기와 변화의 상황에서 적응을 촉진하여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고 긍정적 영향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전신현·이성식, 2017). 특히, 가족은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타인으로, 김정현(2008)의 연구에서는 일상적 스트레스가 높더라도 가족의 응원과 지지를 통해 학교생활 적응도를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가족의 보살핌과 지지가 삶의 만족, 진로발달 등 긍정적 성장과 변화를 도울 뿐만 아니라 취업스트레스, 취업불안 등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서 보고되었다(문성연·이봉근, 2018; 서보람·이기성, 2018; 신자연·김경신, 2019). 더불어 대학생 시기는 성인 이행기로써 점차 외부적 관계에 집중하여 학교생활을 함께하는 친구 또는 선배와 긴밀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다(신자연, 2018). 중요한 타인으로서 친구·선배의 사회적 지지는 취업스트레스와 우울 및 절망감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며(서인균·이연실, 2015),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는 대학생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믿

음과 지지가 되어 진로와 전공, 취업영역에서도 높은 성취도를 갖게 하는 긍정적 역할을 한다(이정임, 2016).

이렇듯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 가족지지 및 친구·선배지지 간의 관계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가족지지 또는 친구·선배지지를 높게 지각한 대학생들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변화의 상황에서 적응할 수 있는 경향성이 높으므로, 전공만족도가 높은 대학생일수록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감소시킬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동시에 가족지지 및 친구·선배지지가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불안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개인적·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를 예방적 차원으로 접근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함으로써 대학생 진로교육 및 상담의 기초자료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족지지 및 친구·선배지지가 조절 효과를 가지는지를 규명함으로써 대학생에 대한 보살핌과 지지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가족지지 및 친구·선배지지, 취업스트레스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가족지지 및 친구·선배지지, 취업스트레스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가족지지 및 친구·선배지지의 조절 효과는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2.1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

취업스트레스는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 반응의 한 종류이다. 스트레스란 개인에게 발생하는 내·외적 요구에서 그 요구와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사이에 지각되는 불균형으로 개인이 위협받는다고 평가될 때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심리적, 행동적, 생리적 반응을 말한다(김용수·박현주, 2008; Lazarus & Folkman, 1984). Selye(1976)는 처음으로 스트레스를 개념화하였으며, 이후 의학 분야를 비롯한 심리학, 경영학 등의 인간행동과학 분야에서 폭넓게 다루어지며 친숙한 개념이 되었다. 다양한 요구를 가진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누구나 불가피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전미애, 2006).

취업스트레스는 학자마다 설명하는 관점과 대상이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박은혁과 이응택(2013)은 취업스트레스를 취업 준비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신체적 부조화로 불안과 두려움, 걱정 등의 정서적 감정을 느끼는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다른 연구에서는 취업스트레스를 대학생뿐만 아니라 최근 대학을 졸업한 미취업자를 포함하여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라고 설명하였다(정의석·노안영, 2001). 또한, 천만봉과 이종구(2013)는 취업스트레스가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에게만 해당하는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대학을 입학한 이후 신입생 시기부터 발생하며, 학업을 수행하고 취업을 준비하면서 직면하게 되는 중·장기적 스트레스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학생이 지각하는 취업스트레스는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그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취업스트레스를 더욱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변은경·박성희, 2014), 학년이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김은주·최경원, 2012, 김종운·지연옥, 2016). 또한, 학제 간 차이에서도 2년제 전문대학생이 4년제 일반대학생에 비해 높은 스트레스의 수준을 보이는 등(박은혁·이응택, 2013) 대학생의 다양한 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2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

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탐색한 연구를 살펴보면 학과만족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이수희 등, 2016), 김계현와 하혜숙(2000)의 연구에 따르면 전공은 학문적으로 배우는 커리큘럼의 개념에 보다 집중되어 있고, 학과는 단체 중심의 좀 더 포괄적인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다. 전공만족도는 적성에 대한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며, 개인이 설정한 진로·직업의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속한 전공이 얼마나 충족되는지의 정도를 의미한다(박윤미·양지인, 2019; 정영희·양진희, 2013). 또한, 박선미(2011)는 전공만족도가 개인적인 기준과의 비교뿐만 아니라 부모·가족 및 교사의 기대와 같이 타인으로부터의 외부적 요인과도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변 사람들의 평가도 함께 포함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부여되는 의미가 큰 이유는 비교적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수업시수가 정해져 있는 중·고등학생 때와 다르게 대학생들의 학교생활은 전공학과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다(조인숙·전호재, 2017). 개인이 선택한 전공에 따라 단순히 대학생활 뿐만 아니라 전공학과에 따라 장래 진로 방향과 직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Holland, 1997). 그런데도 대다수 학생은 적성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하기보다는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점수에 맞춰 전공을 선택하는 현실이다. 이렇게 적성에 맞지 않는 학과를 선택하는 대학생들의 경우 전공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한의진·황보명, 2016).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 간 관계에서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대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대한 기준의 일치를 의미하는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생겨서 취업을 준비하는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취업스트레스를 완

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유은영·양유정, 2013). 그러나 대학생들은 자신의 적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공의 선택으로 전공만족도가 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취업스트레스로 연결될 수 있다(박윤미·양지인, 2019; 변은경·박성희, 2014). 보건계열 학생을 중심으로 살펴본 이재도와 권용현(2012)의 연구에서도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보건계열의 특성을 이해하고 학과를 선택한 학생들은 전공만족도가 높으면서도 취업스트레스도 낮게 나타나 진로와 적성에 밀접한 관계를 갖는 만큼 학과의 만족도는 대학생의 취업 문제에 주는 영향이 크다고 보았다. 전공만족도가 높은 대학생들은 취업에 대한 준비와 확신을 가지고 뚜렷한 계획과 목표를 세워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게 되어 취업스트레스를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2.3 가족지지

가족지지는 가족구성원이 한 개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심리적·행동적 반응을 약화하고 변화에 긍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측면에서 인간발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신동주·김승옥, 2016). 사회적 관계 속에서 제공되는 타인의 모든 지지는 개인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적 문화구조로 인하여 가족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이현지, 2005), 다른 어떤 타인의 지지보다도 가족지지의 영향력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 아직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한 청소년 및 대학생들은 성장발달을 위해 가족지지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가족지지를 용돈과 같은 물질적인 물리적 지지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소통하는 정서적 지지로 나누어 볼 때 두 가지의 가족지지가 함께 제공될 때 긍정적 영향력이 극대화된다(이명순·변미희, 2007). 선행연구에서는 높은 수준으로 가족의 보살핌과 지지를 지각한 대학생들이 삶의 만족, 학교적응 등 여러 영역에서 긍정적인 성장과 변화를 보였다(문성연·이봉근, 2018; 신자연·김경신, 2019). 또한, 진로와 취업영역에서도 가족지지를 통해 자신감을 얻어 진로준비 행동과 전공만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취업불안과 취업스트레스 등 부정적 요인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서보람·이기성, 2018). 이에 가족지지는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영향력을 증폭시키는 조절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2.4 친구·선배지지

대학생은 친밀감의 시기로서 Furman과 Buhrmester(1992)는 가족에 대한 인식이 점차 친구와 같은 사회관계에 대한 지각으로 변화된다고 하였다. 이에 중요한 타인으로서의 가족지지뿐만 아니라 대학생활을 함께하는 친구·선배지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친구·선배지지는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로서 사회적 지지와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Cobb(1976)는 사회

적 지지를 세 가지 분류의 정보로써 대상자가 사랑받고 있다고 믿도록 하는 정보, 가치가 있고 존중받고 있다는 정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조직망에 속하고 있다는 정보로 설명한다. Birch(1998)는 사회적 지지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타인에 관한 관심을 의미하는 정서적 지지, 타인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적 지지, 돈, 책, 운송 수단 등과 같이 타인이 필요로 하는 물질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물리적 지지, 타인의 행동에 대한 피드백과 칭찬을 제시하는 평가적 지지로 설명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를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의 유형을 포함한 중요한 타인으로부터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인지하는 정도라 설명하였다(박지원, 1985). 즉, 사회적 지지로서의 친구·선배지지는 대학생들의 사회적 관계에서 대학생활을 함께 영위하는 중요한 타인으로부터의 긍정적 영향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살펴본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감소하는데, 이는 관심과 격려와 같은 지지가 어려운 취업환경에서의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박인숙·안성식, 2019; 이무형, 2020). 사회적 지지를 조절 효과로서 살펴본 서인균과 이연실(2015)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취업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완충효과를 보였다. 또한, 조혜정(2013)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취업스트레스와 행복 간의 관계를 탐색할 때, 사회적 지지를 높은 수준으로 지각한 대학생이 취업스트레스가 높더라도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학생의 중요한 사회적 지지로서 친구·선배지지는 가족지지와 마찬가지로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조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볼 때, 전공만족도와 가족지지 및 친구·선배지지의 영향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며(이승익·이무형, 2018), 취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서의 전공만족도와 가족지지 및 친구·선배지지의 조절 효과가 있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Ⅲ.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연구대상으로 포함된 대학생 307명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먼저, 대학생의 성별로는 남학생이 138명(45.0%), 여학생이 169명(55.0%)으로 비교적 고른 성비를 보였으며, 학교 유형은 일반대학이 223명(72.6%), 전문대학이 84명(27.4%)으로 「2019년 교육기본통계」에 나타난 일반대학(2,001,643명, 75.7%)과 전문대학(643,762명, 24.3%)의 재적 학생 비율과 유사하게 조사되었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9). 학년은 학교 유형에 따라 학년이

다르게 편성되어있어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으로 나누어보면, 일반대학은 1학년 22명(7.2%), 2학년 48명(15.6%), 3학년 52명(16.9%), 그리고 4학년은 정규학기 67명(21.8%), 수료·유예 34명(11.1%), 전문대학은 1학년 28명(9.1%), 2학년 56명(18.2%)으로 조사되었다. 학교 소재지는 '서울권'이 170명(55.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전공계열은 '인문사회계열'이 146명(47.6%)으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이들의 학업성적은 '중'이 193명(62.9%)으로 중위권 층이 가장 두텁게 나타났으며, 휴학 경험은 '없음' 208명(67.8%)으로 '있음(군휴학 제외)' 99명(32.2%)보다 높았고, 졸업 후 희망진로는 '취업'이 214명(69.7%)으로 '진로 및 기타' 93명(30.3%)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학교만족도는 '상' 137명(44.6%), '중' 133명(43.4%), '하' 37명(12.1%) 순으로, 취업준비 정도는 '중' 161명(52.4%), '하' 111명(36.2%), '상' 35명(11.4%)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생활 수준은 '중' 이 229명(74.6%)으로 '하' 52명(16.9%), '상' 26명(8.5%)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구분			N(%)	구분		N(%)
성별		남	138 (45.0)	학업성적	하	32 (10.4)
		여	169 (55.0)		중	193 (62.9)
학교 유형		일반대학	223 (72.6)		상	82 (26.7)
		전문대학	84 (27.4)			
학년	일반대학	1학년	22 (7.2)	휴학 경험	없음	208 (67.8)
		2학년	48 (15.6)		있음(군휴학 제외)	99 (32.2)
		3학년	52 (16.9)			
		4학년(정규)	67 (21.8)	졸업 후 희망진로	취업	214 (69.7)
		4학년(수료·유예)	34 (11.1)		진학 및 기타	93 (30.3)
		소계	223 (72.6)			
	전문대학	1학년	28 (9.1)	학교 만족도	하	37 (12.1)
		2학년	56 (18.2)		중	133 (43.3)
		소계	84 (27.4)		상	137 (44.6)
학교 소재지		서울권	170 (55.4)	취업준비 정도	하	111 (36.2)
		경기권	66 (21.5)		중	161 (52.4)
		충청권	22 (7.2)		상	35 (11.4)
		경상권	17 (5.5)			
		전라권	32 (10.4)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146 (47.6)	경제적 생활 수준	하	52 (16.9)
		자연계열	79 (25.7)		중	229 (74.6)
		기타[1]	82 (26.7)		상	26 (8.5)

※ 1) 전공계열 기타는 예체능계열, 사범교육 계열임

3.2 연구도구

3.2.1 전공만족도

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귀하의 전공만족도는?”의 단일 문항을 사용하여 ‘매우 불만족(1점)’ 부터 ‘매우 만족(5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단일 문항의 측정은 질문에 대한 응답을 명료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Rossiter, 2002), 다수의 연구에서 전공만족도를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여 연구변인 간의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박미정·전원희, 2016; 전현정·정혜원, 2018).

3.2.2 가족지지

가족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Dubow와 Ullman(1989)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수정·번안한 최지은(2010)의 ‘가족지지 척도’를 일부 문항을 선별·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 물질적 지지의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 경우 가족으로부터 여러 가지 도움 및 지지를 받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가족지지의 Cronbach의 alpha 값은 .94로 산출됐으며,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 및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표 2> 가족지지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 수	Cronbach’s α
정서적 지지	1, 2, 3, 12	4	.89
정보적 지지	4, 6, 7, 8	4	.87
평가적 지지	9, 10, 11, 13	4	.86
물질적 지지	5, 14, 15	3	.73
전체		15	.94

3.2.3 친구·선배지지

친구·선배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박지원(1985)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만든 척도에서, 신자연(2018)이 친구·선배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문항을 선별·수정한 ‘친구·선배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가족지지와 마찬가지로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 경우 친구·선배로부터의 지지를 받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Cronbach의 alpha 값은 .93으로 산출됐으며,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 및 신뢰도는 <표 3>와 같다.

<표 3> 친구·선배지지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 수	Cronbach's α
정서적 지지	3, 4, 5	3	.83
정보적 지지	7, 9, 10	3	.82
평가적 지지	1, 2, 6	3	.83
물질적 지지	8, 11, 12	3	.74
전체			.93

3.2.4 취업스트레스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정의석과 노안영(2001)이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취업스트레스 검사' 척도를 사용했다. 해당 척도는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예로는 '나는 취업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두려운 생각이 든다', '나는 취업이 안 됐을 경우를 자주 생각해 본다', '나는 취업이 어렵다는 뉴스를 보고 들을 때면 취업에 대하여 걱정이 된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 경우 취업스트레스의 정도가 높은 수준으로 지각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취업스트레스의 Cronbach의 alpha 값은 .88로 산출됐다.

3.3 연구절차

3.3.1 예비조사

본 조사에 앞서 온라인 설문지를 구성하여 2020년 6월 2일 대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설문지를 작성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연구도구에 대한 적절성과 문항 이해 등을 확인하였다. 조사시간은 평균 8~12분 정도 소요되었고, 연구도구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문항 전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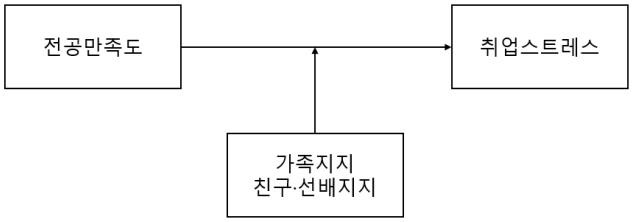
3.3.2 본 조사

본 조사는 2020년 6월 3일부터 7일까지 서울특별시 소재 K대학과 M대학, 경기도 소재 D대학, 인천광역시 소재 I대학, 충청북도 소재 C대학, 부산광역시 소재 P대학, 전라북도 소재 J대학 총 7개교를 선정하여 해당 학교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집을 실시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어 자료수집은 '네이버 폼 설문조사' 기능을 활용하여 URL 온라인 설문지 형태로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346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연구대상으로 부적절하거나 응답이 불성실한 39부를 제외한 307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3.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수집된 자료들은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과 빈도분석을 하였고,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검토하기 위해 Cronbach의 alpha 값을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문제 1>의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가족지지 및 친구·선배지지, 취업스트레스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최소값, 최대값, 평균, 그리고 표준편차의 기술통계량을 산출하였다. 셋째, <연구문제 2>의 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성별, 학교 유형, 학년, 학교 소재지, 전공계열 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과 일원분산분석, 그리고 집단 간 차이에 대해서는 Scheffe 사후검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연구문제 3>의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가족지지 및 친구·선배지지, 취업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4>의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가족지지 및 친구·선배지지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은 다중공선성 문제를 방지하고자 평균중심화(mean-centering)를 했으며, 최종적으로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고자 Durbin-Watson 계수 및 분산팽창요인(VIF) 지수를 산출하였다. 이후 조절변인의 평균값(M)을 기준으로 ±1 표준편차(SD) 값을 이용하여 조절변인을 높게 지각하는 집단과 낮게 지각하는 집단을 구분하는 그래프를 제시하고 단순기울기(simple slope) 검정을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모형은 다음과 같다(<그림 1> 참조).

<그림 1> 연구모형



Ⅳ. 연구결과

4.1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가족지지 및 친구·선배지지, 취업스트레스의 일반적 경향

주요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여 <표 4>에 제시하였다. 먼저,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의 평균은 3.60점(SD=1.02)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족지지 평균은 3.99점(SD=.66)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친구·선배지지 평균도 3.99점(SD=.54)으로 가족지지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 평균은 2.87점(SD=.66)으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4>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가족지지, 친구·선배지지, 취업스트레스의 일반적 경향

구분	Min.	Max.	M	SD
전공만족도	1.00	5.00	3.60	1.02
가족지지	2.00	5.00	3.99	.66
친구·선배지지	2.17	5.00	3.99	.54
취업스트레스	1.00	4.27	2.87	.66

4.2 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 차이

본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분산분석 및 Scheffe 사후검정을 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2.57, p<.05). 구체적으로 여학생(M=2.95, SD=.64)이 남학생(M=2.76, SD=.64)에 비해 취업스트레스를 더 높게 인지하였다. 다음으로 학교 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28, p<.05). 다시 말해 전문대학생(M=2.99, SD=.55)이 일반대학생(M=2.82, SD=.67)에 비해 취업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 학년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학년 체계가 다름으로 취업의 최전선에 있는 전문대학 2학년과 일반대학 4학년을 졸업학년으로, 나머지를 일반학년으로 구분하여 두 학년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졸업학년(M=2.97, SD=.64)이 일반학년(M=2.76, SD=.64)과 비교하여 취업스트레스 정도가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91, p<.01). 졸업 후 희망진로에 대한 차이에서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M=2.92, SD=.65)이 진학 및 기타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M=2.75, SD=.63)보다 취업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t=2.13, p<.05). 학교만족도에 따른 차이에서 유의미한 차이(F=8.63, p<.001)를 보였으며, 취업준비 정도에 따른 차이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24.65, p<.001). 이는 Scheffe 사후검증을 통해 살펴본 결과, 학교만족도의 중 집단(M=3.02, SD=.60)이 상 집단(M=2.70, SD=.65)보다 유의미하게 취업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 취업준비 정도에서는 하(M=3.13, SD=.56), 중(M=2.79, SD=.62), 상(M=2.36, SD=.64) 집단의 순으로 높은 취업스트레스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생활 수준에 따른 차이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F=12.75, p<.001), Scheffe 사후검증에 따라 하(M=3.04, SD=.62), 중(M=2.89, SD=.62), 상(M=2.31, SD=.67) 집단 순으로 취업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학교 소재지, 전공계열, 학업성적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5> 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 차이

구 분		N	M(SD)	F/t (Scheffe)
성별	남	138	2.76(.64)	-2.57*
	여	169	2.95(.64)	
학교 유형	전문대학	84	2.99(.55)	2.28*
	일반대학	223	2.82(.67)	
학년	일반학년[1)]	150	2.76(.64)	-2.91**
	졸업학년[2)]	157	2.97(.64)	
학교 소재지	서울권	170	2.85(.65)	.81
	경기권	66	2.90(.67)	
	충청권	22	3.07(.51)	
	경상권	17	2.75(.72)	
	전라권	32	2.82(.59)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146	2.95(.65)	2.13
	자연계열	79	2.79(.63)	
	기타[3)]	82	2.80(.65)	
졸업 후 희망진로	취업	214	2.92(.65)	2.13*
	진학 및 기타	93	2.75(.63)	
학업성적	하	32	2.75(.76)	1.58
	중	193	2.92(.61)	
	상	82	2.80(.68)	
휴학 경험	없음	208	2.88(.62)	.451
	있음(군휴학 제외)	99	2.84(.69)	
학교만족도	하	37	2.93(.66)	8.63*** (a>b)
	중[a]	133	3.02(.60)	
	상[b]	137	2.70(.65)	
취업준비 정도	하[a]	111	3.13(.56)	24.65*** (a>b>c)
	중[b]	161	2.79(.62)	
	상[c]	35	2.36(.64)	
경제적 생활 수준	하[a]	52	3.04(.62)	12.75*** (a>b>c)
	중[a]	229	2.89(.62)	
	상[b]	26	2.31(.67)	

※ *p < .05, **p < .01, ***p < .001
※ 1) 일반학년은 전문대학 1학년, 일반대학 1~3학년임
2) 졸업학년은 전문대학 2학년, 일반대학 4학년(정규 및 수료·유예)임
3) 전공계열 기타는 예체능계열, 사범교육계열임

4.3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가족지지 및 친구·선배지지, 취업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가족지지 및 친구·선배지지, 취업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는 전공만족도와 부적상관(r=-.28, p<.001)을 보였으며, 마찬가지로 가족지지(r=-.29, p<.001) 및 친구·선배지지(r=-.25,

p<.001)도 부적상관을 보였다. 즉 전공만족도가 높을 경우, 가족과 친구·선배로부터의 높은 지지를 받을 경우, 취업스트레스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표 6>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가족지지 및 친구·선배지지, 취업스트레스의 상관관계

구분	전공만족도	가족지지	친구·선배지지	취업스트레스
전공만족도	1			
가족지지	.22***	1		
친구·선배지지	.23***	.40***	1	
취업스트레스	-.28***	-.29***	-.25***	1

※ ***p < .001

4.4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가족지지 및 친구·선배지지의 조절 효과

본 연구는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 간 관계에서 가족지지 및 친구·선배지지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은 다중공선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균중심화(mean-centering) 했으며, 분산팽창요인(VIF) 지수 값을 산출하여 그 값이 10미만인지 확인한 결과, 모든 변인의 VIF값이 1.02에서 1.47 사이로 10을 넘지 않았다. 또한, 자기상관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Durbin-Watson 지수를 확인한 결과, 가족지지 2.00, 친구·선배지지 2.01로 모두 2에 가깝게 나타나 최종적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절 효과 검증을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통제하고자 하는 변인이 있는 경우, 첫 번째 단계에서 통제변수를 투입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인과 조절변인 투입,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다. 이때, 마지막 단계에서 최종모형에 대한 F 검증이 유의미하며, 상호작용 항의 변량을 의미하는 두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 간의 R^2값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날 경우, 조절 효과가 존재함을 시사한다(서영석,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 차이에서 유의미한 값을 가진 성별, 학교 유형, 학년, 졸업 후 희망진로, 학교만족도, 취업준비 정도, 경제적 생활 수준을 첫 번째 단계에서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조절변인으로 각각 가족지지 및 친구·선배지지를 투입하였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조절변인인 가족지지 및 친구·선배지지에 대한 상호작용 항을 각각 투입하여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가족지지 및 친구·선배지지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았다.

4.4.1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가족지지 조절 효과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가족지지 조절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표 7>에 제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 투입한 통제변수에서는 성별(β=.11, p<.05), 학년(β=.15, p<.01), 졸업 후 희망진로(β=.11, p<.05), 취업준비 정도(β=-.33, p<.001), 경제적 생활 수준(β=-.16, p<.01)이 취업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13.53, p<.001),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24.1%를 설명하였다(R^2=.241, p<.001). 두 번째 단계에서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가족지지를 투입한 결과, 대학생의 전공만족도(β=-.13, p<.05)와 가족지지(β=-.17, p<.001)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12.95, p<.001),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력은 4.1% 증가하였다(R^2=.282, p<.001).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가족지지의 상호작용 항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전공만족도(β=-.12, p<.05)와 가족지지(β=-.17, p<.001), 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 항(β=-.11, p<.05)이 취업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F=12.34, p<.001),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력은 1.2% 증가하여 29.4%로 나타났다(R^2=.294, p<.001). 마지막 단계에서 상호작용 항의 변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 최종모형에 대한 F변화량이 .05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 간의 가족지지의 조절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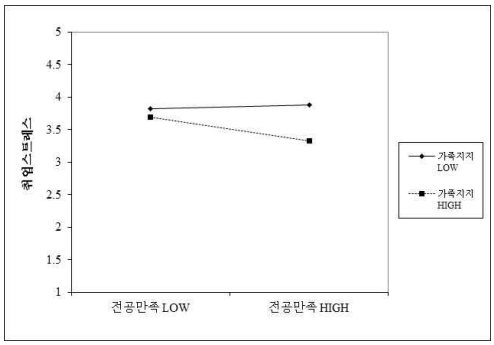
<표 7>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조절 효과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B	β	B	β
성 별[1]	.14	.11*	.15	.11*	.14	.10*
학교 유형[2]	-.09	-.06	-.09	-.06	-.08	-.06
학 년[3]	.19	.15**	.15	.11*	.14	.11*
졸업 후 희망진로[4]	.16	.11*	..15	.11*	.16	.11*
학교만족도	-.09	-.10	-.02	-.02	-.02	-.02
취업준비 정도	-.33	-.33***	-.30	-.30***	-.29	-.29***
경제적 생활 수준	-.21	-.16**	-.15	-.11*	-.14	-.11*
전공만족도(A)			-.08	-.13*	-.08	-.12*
가족지지(B)			-.17	-.17***	-.17	-.17***
A x B					-.11	-.11*
R^2	.241		.282		.294	
ΔR^2	.241		.041		.012	
F	13.53***		12.95***		12.34***	

※ *p < .05, **p < .01, ***p < .001
※ 1) 성별은 더미변수화 함(남=0, 여=1)
2) 학교유형은 더미변수화 함(전문대학=0, 일반대학=1)
3) 학년은 더미변수화 함(일반학년=0, 졸업학년=1)
4) 졸업 후 희망진로는 더미변수화 함(진학 및 기타=0, 취업희망=1)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조절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Aiken과 West(1991)의 방법에 따라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였다. 평균값(M)을 기준으로 가족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집단(M+1SD)과 가족지지를 낮게 지각하는 집단(M-1SD)으로 분류하여 상호작용 효과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가족지지가 높게 지각된 경우 전공만족도의 높낮이에 따른 기울기가 가파르게 나타나지만, 가족지지가 낮게 지각된 경우에는 기울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가족지지를 높게 지각한 대학생들은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났지만, 가족지지가 낮게 지각된 경우 전공만족도가 높든 낮든 관계없이 취업스트레스의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2>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조절 효과



4.4.2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친구·선배지지의 조절 효과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친구·선배지지 조절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첫 번째 단계에서 투입한 통제변수에서는 성별(β=.11, p<.05), 학년(β=.15, p<.01), 졸업 후 희망진로(β=.11, p<.05), 취업준비 정도(β=-.33, p<.001), 경제적 생활 수준(β=-.16, p<.01)이 취업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13.53, p<.001),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24.1%를 설명하였다(R^2=.241, p<.001). 두 번째 단계에서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친구·선배지지를 투입한 결과, 대학생의 전공만족도(β=-.12, p<.05)와 친구·선배지지(β=-.19, p<.001)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13.51, p<.001),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력은 5.0% 증가하였다(R^2=.291, p<.001).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친구·선배지지의 상호작용 항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주 효과의 친구·선배지지(β=-.23, p<.001)만이 취업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F=12.17, p<.001),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력은 0.1% 증가하여 29.2%로 나타났다(R^2=.292, p<.001). 마지막 단계에서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친구·선배지지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아 친구·선배지지는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 간의 관

계를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친구·선배지지의 조절 효과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B	β	B	β
성 별[1]	.14	.11*	.17	.13*	.16	.13*
학교 유형[2]	-.09	-.06	-.11	-.08	-.11	-.08
학 년[3]	.19	.15**	.14	.11*	.14	.11*
졸업 후 희망진로[4]	.16	.11*	.15	.11*	.15	.11*
학교만족도	-.09	-.10	-.02	-.02	-.02	-.02
취업준비 정도	-.33	-.33***	-.30	-.30***	-.30	-.30***
경제적 생활 수준	-.21	-.16**	-.20	-.16**	-.20	-.15**
전공만족도(A)			-.07	-.12*	-.07	-.12
친구·선배지지(B)			-.23	-.19***	-.23	-.19***
A x B					-.03	-.03
R^2	.241		.291		.292	
ΔR^2	.241		.050		.001	
F	13.53***		13.51***		12.17***	

※ *p <.05, **p <.01, ***p <.001
※ 1) 성별은 더미변수화 함(남=0, 여=1)
2) 학교유형은 더미변수화 함(전문대학=0, 일반대학=1)
3) 학년은 더미변수화 함(일반학년=0, 졸업학년=1)
4) 졸업 후 희망진로는 더미변수화 함(진학 및 기타=0, 취업희망=1)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가족지지 및 친구·선배지지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대학생 307명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 가족지지 및 친구·선배지지, 취업스트레스에 대하여 조사하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 및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가족지지 및 친구·선배지지,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전공만족도는 중간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또는 학과 만족도가 중간 수준 이상으로 나타난 대다수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박효진 등, 2020; 한의진·황보명, 2019). 이는 연구대상 대학생들이 비교적 전공에 만족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전공만족도가 낮은 학생들이 자퇴, 휴학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여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족지지와 친구·선배지지는 서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족지지와 친구·선배

지지는 사회적 지지의 하나로 이를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대학생이 사회적 지지를 높은 수준으로 지각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서인균·이연실, 2015; 오옥선, 2017).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는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박은혁·이응택, 2013; 정영희·양진희, 2013)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둘째,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 학교 유형, 학년, 졸업 후 희망진로, 학교만족도, 취업준비 정도, 경제적 생활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취업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연수와 유상희(2013)는 여전히 남성 중심의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여성 취업의 문이 좁다는 인식이 여학생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취업스트레스에 기인한다고 설명하였다. 학교 유형에 따른 차이에서는 전문대학생이 일반대학생보다 높은 수준의 취업스트레스를 보였다. 전문대학생은 일반대학생보다 재학 기간이 짧아 취업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박은혁과 이응택(2013)은 전문대학생은 2학년이 되면서 바로 졸업과 취업을 동시에 준비하기 때문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학년에 따른 차이에서는 졸업학년의 대학생이 일반학년보다 높은 수준의 취업스트레스를 보였다. 졸업 후 희망진로에 따른 차이에서는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이 진학 등의 계획을 갖는 대학생에 비해 높은 취업스트레스를 보였다. 학교만족도에 따른 차이에서는 만족도가 높은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은 학교생활 적응도가 높아 자신의 진로 선택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취업준비 정도에 따른 차이에서는 대체로 만족하는 학생들이 보통과 불만족의 학생들보다 취업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낮았고, 매우불만족의 학생들이 가장 높은 수준의 취업스트레스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주관적인 취업준비 정도의 인식이 취업스트레스와 높은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어학점수, 자격증, 봉사활동 등 취업역량을 갖추지 못한 대학생이 취업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한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 생활 수준에 따른 차이로는 경제적 생활 수준이 낮은 대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취업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변은경과 박성희(2014)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로 경제적 생활 수준이 낮은 대학생들은 대학 생활과 동시에 용돈과 아르바이트 등을 병행하며 학교생활 및 취업 준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취업스트레스의 증가로 작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학교 소재지, 전공계열, 학업성적, 휴학 경험에 따른 취업스트레스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김은주와 최경원(2012)의 연구에서는 지방권 지역 학생들이 수도권 지역 학생들보다 취업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고, 변은경과 박성희(2014)의 연구에서는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았으며, 전공계열에 따른 취업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를 밝힌 바 있어 추후 연구가 필요한 부분으로 사료된다.

셋째,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가족지지 및 친구·선배지지, 취업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전공만족도는 취업스트레스와 부적 상관이 있었다. 즉 전공만족도가 높은 대학생들은 취업스트레스를 낮게 인식하는 것이다. 대다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김지영·한채정, 2019; 정영희·양진희, 2013, 한의진·황보명, 2019)로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은 학교생활 적응과 학업

집중도가 높아지게 되고 전공에 대한 역량이 향상되어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확장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진로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고취됨에 따라 취업스트레스를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게 됨을 의미한다. 가족지지 및 친구·선배지지는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취업스트레스를 완화시킨다는 선행연구(조혜정, 2013)와 유사한 양상을 나타냈다. 타인으로부터 받는 긍정적 자원의 지지는 우울, 절망감 등 정신건강 요소에 보호요인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연구를 통해 밝혀져 왔다(김정현, 2008; 서인균·이연실, 2015). 이러한 결과를 통해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보호요인으로서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넷째,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가족지지 및 친구·선배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가족지지는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조절 효과가 있었다. 이는 앞서 선행연구를 통해 가족지지가 전공만족도가 높을 수록 취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영향이 증폭될 것으로 예측한 결과와 일치한다. 전공만족도가 높은 대학생들은 자신의 적성을 찾고 적극적으로 취업준비 활동을 하면서 낮은 수준의 취업스트레스를 보이고, 이때 대학생에게 높은 수준의 가족지지 제공은 긍정적 행동을 유도 또는 강화해줌으로써 취업스트레스를 더 낮추는 증폭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유은영·양유정, 2013; 이승익·이무형, 2018). 반면, 친구·선배지지는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조절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가족지지와 친구·선배지지는 비슷한 수준으로 지각되었으나 조절 효과에서는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 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정선욱(2015)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유추해볼 수 있다. 정선욱(2015)은 대학에 진학한 시설 퇴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원가족과의 단절로 가족지지보다 친구지지를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들의 진로준비 행동에는 가족지지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구지지는 진로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의 진로준비 행동에 있어서 친구보다 가족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추론해볼 수 있다. 또한, 오윤자 등(2018)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 가장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 부모, 형제의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으로 나타나, 대학생의 진로와 취업에 관한 결정에 있어 가족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고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비춰볼 때,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조절 효과를 보인 가족지지가 진로 변인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학문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를 분석한 선행연구가 많았지만 두 변인 간의 조절 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부족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족지지와 친구·선배지지를 중점으로 조절 효과를 살펴보았다. 특히,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가족지지 또는 친구·선배지지의 한 가지 변인으로만 살펴보았기 때문에 두 변인 간의 비교가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지지만이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조절 효과를 가짐으로써 성인기에 진입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여전히 가족요인이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대학생의 여러 개인적 특성을 조사하여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폭넓게 탐색하였다. 그 중, 학교 유형, 학년, 졸업 후 희망진로

등 일부 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의 차이가 나타나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를 연구하는 범위를 넓히는데 기여하였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지지가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조절 효과를 나타냄에 따라,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가족지지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는 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더욱 극대화하여 취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가족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하는 의미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대학생의 시기는 부모로부터의 독립이라는 발달과업과 동시에 아직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한 전이적 특성을 가지므로 대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위하여 가족지지가 영향력 있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학교 취업진로센터 및 지역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통해 대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대학생의 부모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취업 지원 교육 및 상담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 대학생에게 필요한 심리적·물질적 지원을 부모와 가족들이 함께 조력함으로써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학교 유형, 학년, 졸업 후 희망진로 등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의 차이가 나타남에 따라,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지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대학생들이 학업과 진로에 대한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적극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등 대학생의 복지적 시설과 제도가 미약한 실정이다(박수진 등, 2017). 이에 대학교에서는 대학생의 특성이 반영된 집단을 구성하여 취업과 진로에 필요한 맞춤형 집단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예를 들어, 학교 유형에 따른 취업스트레스의 차이는 전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을 위한 차별화된 취업준비와 진로계획 수립에 대한 것들이 해당될 수 있다. 장기간 학문과 지식을 탐구하는 일반대학과 단기간 실무능력과 전문기술을 배양하는 전문대학의 교육적 목적의 차이가 존재한다. 즉, 학제간 차이에 따른 수업 연한에 맞춰 진로 및 취업준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진로계획 수립과 취업 준비를 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경제적 생활 수준에 따른 취업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을 위한 경제적·심리적 지원의 제공을 시사하고 있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학점수 및 자격증 취득 등의 제약을 받기 쉽다.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취업준비생에 대한 청년구직 활동지원금과 내일배움카드 등의 취업지원 훈련이 마련되었지만, 대학생으로 분류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 이에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대학생들은 예외를 두어 취업에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대한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전공계열을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 기타로 구분하여 전공계열에 따른 취업스트레스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보건의료계열, 아동학과 및 유아교육과와 같이 졸업과 동시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학과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기업연계형 계약학과 등은 취업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세부적으로 전공을 구분하거나 특정 학과를 대상으로 표집하여 전공 간 취업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특수한 시기적 상황에 조사가 진행되어 변인 측정에 대한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 ‘코로나바이러

스-19' 여파에 따른 채용 축소 및 연기 등으로 인하여 취업스트레스 변인에 대한 응답에 영향이 미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이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주의를 필요로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가족지지와 친구·선배지지로 구체화하여 탐색하였으나, 이를 더 세분화하여 다양한 타인의 지지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진로에 대해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전공 지도교수나 멘토와 같이 의미 있는 타인 등의 사회적 지지원은 높은 상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추후 연구에서 대학생의 진로와 취업에 긍정적 자원이 되는 다양한 지지원의 탐색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상의 제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학생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조절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가족지지의 중요성을 제고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진로교육과 상담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References)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9), **2019년 교육기본통계**.

김계현·하혜숙(2000), "대학생의 학과(학부)만족의 요인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1(1), 7-20.

김연수·유상희(2013), "대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과 생활스트레스와의 관계", **대한치과기공학회지**, 35(4), 405-414.

김용수·박현주(2008),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의 분석", **아동교육**, 17(4), 63-76.

김은주·최경원(2012), "대학생의 취업불안과 우울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 **가정간호학회지**, 19(2), 105-111.

김정현(2008), "청소년기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족지지의 조절 효과: 부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3(4), 161-183.

김종운·지연옥(2016),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우울,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12), 1313-1334.

김지영·한채정(2019), "피부미용전공 대학생 및 졸업생의 전공만족도가 신체적, 심리적 스트레스 및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미용학회지**, 25(1), 35-41.

문성연·이봉근(2018), "체육계열 대학생의 회복탄력성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가족·친구·교수의 사회적 지지 매개효과", **한국스포츠학회지**, 16(4), 461-473.

박미정·전원희(2016),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및 희망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2(1), 34-41.

박선미(2011), **관광관련 전공 대학생의 전공 관련 직업존중감이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수진·구영애·오윤자(2017), "대학생의 진로 및 가치관에 따른 대학생활의 만족도차이에 관한 연구 - K대학교 서울캠퍼스 학생을 중심으로(2013년~2016년) -", **취업진로연구**, 7(1), 121-144.

박윤미·양지인(2019), "취업스트레스가 학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과 진로장벽의 매개효과 검증", **취업진로연구**, 9(2), 55-77.

박은혁·이응택(2013), “대학생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 자아탄력성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4(4), 5-30.

박인숙·안성식(2019), “사회적 지지와 긍정적 심리자본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간호대학생을 중심으로”, **취업진로연구**, 9(2): 27-53.

박지원(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효진·유은주·이화명(2020), “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의 관계: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의 영향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2), 310-322.

변은경·박성희(2014), “전문대학 학생의 전공만족도, 취업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5(1), 323-330.

서보람·이기성(2018), “비서학전공 전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전공만족도,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비서·사무경영연구**, 27(1), 87-116.

서영석(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 효과 검증: 개념적 구분 및 자료 분석 시 고려 사항”,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47-1168.

서인균·이연실(2015),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우울 및 절망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12(1), 117-147.

신동주·김승옥(2016), “보육교사의 정서노동유형과 사회적지지 및 직무스트레스 간의 관계”, **육아지원연구**, 11(1), 119-141.

신자연(2018), **대학생의 자아탄력성, 가족응집성, 사회적 지지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_____, 김경신 (2019), “대학생의 자아탄력성, 가족응집성, 사회적지지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4(2), 85-108.

오옥선(2017), “사회적지지가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4(5), 107-130.

오윤자·이홍연·안성식(2018), “진로결정요소에 따른 대학생활의 만족도차이에 관한 탐색적 연구 - 대학생활에서 개인의 환경특성을 중심으로 -”, **취업진로연구**, 8(2), 117-137.

유은영·양유정(2013), “대학생의 학과만족도, 진로성숙도의 차이와 진로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1(12), 557-568.

이명순·변미희(2007), “청소년에 대한 가족지지가 욕구충족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2(1), 61-81.

이무형(2020), “사회적 지지가 자기효능감과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 호남지역 4년재 조리관련학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 **호텔리조트연구**, 19(2), 287-318.

이수희·정갑연·장용운(2016), “미용관련학과 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와 학과만족도와의 관계연구”, **상업교육연구**, 30(3), 21-47.

이승익·이무형(2018), “대학생의 사회적지지가 전공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4년제 조리전공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호텔리조트연구**, 17(1), 193-213.

이재도·권용현(2012), “보건계대학생의 학과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논문집**, 13(3·4), 117-129.

이정임(2016), **대학생의 사회적지지가 고용가능성에 미치는 영향과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글로벌인적자원개발대학원.

이현지(2005), “탈현대적 가족 여가를 위한 구상”, **사회사상과 문화**, 12, 85-96.

장신애(2016), **취업준비생들이 느끼는 성취압력과 취업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조절 효과**,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전미애(2006),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스트레스 대처전략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전신현·이성식(2017),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긍심 및 사회지지의 작용과 성별차이”, **한국청소년연구**, 28(2), 131-155.

전현정·정혜원(2018), “청소년기 진로 관련 대화 상대 및 빈도에 따른 전공 선택 요인이 전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9(1), 265-294.

정선욱(2015), “대학에 진학한 시설 퇴소 청년의 진로준비행동 영향요인: 사회적 지지와 자아정체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6(1), 191-214.

정영희·양진희(2013), “유아교육전공 졸업예정자들의 취업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0(3), 229-248.

정의석·노안영(2001),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우울증, 자아존중감 및 신체건강과의 관계 연구”, **전남대학교 카운슬링센터**, 33, 85-101.

정철영(2011), “대학생 취업지원 실태와 과제”, **2011년 한국취업진로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109-129.

조인숙·전호재(2017), “대학 교양 교육과정의 발전방안 탐구”, **교육문화연구**, 23(6), 133-155.

조혜정(2013),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4(1), 157-184.

천만봉·이종구(2013), “대졸 취업 예정자들의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연구: 진로의식성숙과 자기 효능감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기업경영연구**, 20(6), 191-214.

최지은(2010), **가족·친구·교사의 지지가 중학생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비교**,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대학원.

한의진·황보명(2016),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취업활동에 관한 연구: 전남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7(4), 1099-1114.

_____(2019), “대학생의 전공만족과 취업스트레스와의 관계연구: 관광계열과 보건계열 비교를 중심으로”, **관광연구**, 34(5), 20-222.

황정희·임석빈(2015), “전문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 고용가능성, 진로준비행동간 관계”, **진로교육연구**, 28(2), 87-105.

Aiken, L. S., & West, S. G.(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Sage Publications, Inc.

Birch, D, A.(1998), “Identifying Sources of Social Support”, *The Journal of School Health*, 68(4), 159-161.

Cobb, S.(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8-40.

Dubow, E. F., & Ullman, D. G.(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1), 52-64.

Furman, W., & Buhrmester, D.(1992), “Age and Sex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Networks of Personal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63(1), 103-115.

Holland, J. L.(1997), *Making Vocational Choices: A Theory of Vacational Personalities and Work Environments(3rd),*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Lazarus, R. S., & Folkman, S.(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

Rossiter, J. R.(2002), “The C-OAR-SE Procedure for Scale Development in Marketing”,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in Marketing*, 19(4), 305-335.

Selye, H.(1976), *The Stress of Life,* New York; McGraw-Hill Co.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l. 11, No. 1 - March 2021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Job-seeking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 The Moderating Effects of Family Support and Friends·Seniors Support -

Jeong, Baek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Ahn, Sun Hee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Oh, Yoon Ja*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oderating effects of family support and friends·seniors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job-seeking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consisted of 307 university students throughout Korea. The participants completed questionnaires on 'Major Satisfaction', 'Employment Stress Scale', 'Family Support Scale', and 'Friends·Seniors Support Scale'. The collected data were mainly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th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by using SPSS 25.0 program.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job-seeking stress according to individual characteristics such as gender, school type, grade, career path after graduation, school satisfaction, degree of job preparation, and economic living conditions. Second, major satisfaction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job-seeking stress. Job-seeking stress was also negatively correlated with family support and friends·seniors support. Third, a moderator effect of the family support was fou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job-seeking stress among the university students. but there was not a moderator effect of the friends·seniors support. This study suggests that improvement on major satisfaction and activation of family supports are needed to achieve a low level of job-seeking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In addition, it is meaningful to examine the factors affecting university students' job-seeking stress and to suggest a way to alleviate them.

Key Words : Major Satisfaction, Family Support, Friends·Seniors Support, Job-Seeking Stress.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Stud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26 Kyungheedae-ro, Dongdaemun-gu, Seoul, Korea 130-701; E-mail: yoonja@khu.ac.kr; Tel: +82-2-961-0522; Fax: +82-2-961-0550.